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분들, 동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지현, 우리에겐 지현님을 떠나보내며,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빛을 함께 기억하려고 모였습니다.

지현님은 대구에서 자라 디자인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UX 디자이너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며 사용자 중심의 문화를 우리 일터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심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흐름에서 사용자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라고 묻던 그 한마디가, 어느새 우리 모두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현님은 밝고 섬세했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협업가였습니다. 해커톤 전날 밤, 모두가 지치고 포기할 핑곗거리를 찾을 때, 지현님은 간식보다 먼저 작은 포스트잇 뭉치를 꺼냈습니다. 각자 이름을 적고,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좋아요. 내일 오전엔 여기를 정리해요. 같이 가죠.”라고, 짧고 정확한 문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밤의 웃음과 집중, 그리고 다음 날의 우승은, 지금도 우리 팀에게 가능한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현님 책상에는 늘 세심한 피드백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는 문제의 지점, 파란 펜으로는 우리가 잘한 지점. 그 노트는 비판보다 배려가 먼저였고, ‘고치자’보다 ‘함께 해보자’가 먼저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묻고, 끝까지 들어주고, 마지막에 꼭 힘이 되는 한마디를 남기던 사람. 그 반짝이는 웃음과 균형 잡힌 조언이 얼마나 그리울지, 오늘 새삼 절감합니다.

일에서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현님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빛을 오래 기다릴 줄 알았고, 새벽 러닝으로 하루를 단단히 여는 사람이었으며, 주말이면 조용히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려견 콩과 산책하며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좋은 디자인은 결국 사람과 시간을 아끼게 해요”라고 말하던 그 얼굴의 온기를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지현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명확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깊은 공감, 정직한 소통, 그리고 팀워크. 그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었고, 그래서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현님이 시작한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팀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 쉽게,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현님께 드릴 가장 정확한 감사와 애도의 방식이라 믿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분께, 그리고 콩에게도, 지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배움을 남겼는지 오늘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현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운이었고, 그가 남긴 기준과 마음을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지켜가겠습니다.

지현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믿어주고, 더 나은 길을 보게 해주고, 어려운 순간마다 미소로 시작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먼저 듣고, 정직하게 말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 당신이 그러했듯이.

편히 쉬세요, 지현님.
당신의 노트와 웃음, 그리고 당신이 밝혀준 길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